

자동화목록 검색시스템의 현황과 표준화 방안*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 목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

Survey and Suggestion for Standardization of Online Catalog Retrieval Systems: Focused on the University Library Catalogs in Busan, Ulsan, Gyeongnam District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의 평가와 대안 |
| II. 목록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 1. 자료 유형 구분의 다양성과 도서관 간의 공통성 결여 |
| III. 목록 검색시스템의 현황 | 2. 접근점 종류의 다양성과 공통성 결여 |
| 1. 검색을 위한 자료 유형 구분 | 3. 검색조건의 도서관간 공통성 결여 |
| 2. 통합검색의 접근점과 검색조건 | V. 결론 |
| 3. 자료 유형별 접근점과 검색조건 | |

초 록

이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23개 대학도서관의 온라인목록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 도서관 목록들의 검색을 위한 자료 유형 구분, 검색을 위한 접근점, 자료검색의 조건들(검색어 조합방식, 검색어 일치방식, 검색의 상세 수준)은 다양하고 서로 달랐다. 이러한 결과와 그 평가를 토대로 온라인목록 검색시스템의 자료 유형 구분, 접근점 종류, 검색조건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목록, 온라인목록, 목록검색, 표준화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online catalog retrieval system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Busan, Ulsan, Gyeongnam districts. The types of library materials, and the kinds of access points and retrieval conditions(Boolean logic, methods of index term identification, and particularities of the retrieval) of these systems are various and different to each other. Upon the result of this survey a sugges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online catalog retrieval systems is offered.

Key Words: Catalog, Online-catalog, Retrieval, Standardization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27AA023)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thdoh@deu.ac.kr)

• 접수일: 2007년 11월 2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I. 서론

목록업무의 자동화는 도서관 내에서 목록이 갖는 위상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¹⁾ 수정 복제 전송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목록의 자동화가 갖는 의의로는 무엇보다도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검색기법들의 도입임을 간과할 수 없다.

카드목록에서는 공간적 제약이나 목록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 때문에 표목(접근점)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표목의 수가 늘면 그만큼 카드 수량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목록은 키워드 검색이나 검색어의 조합이 용이하지 못하여 주로 전조합색인 방식으로 표목을 작성하였으며, 일치방식도 말하자면 전방일치나 완전일치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카드목록은 편성체제도 비교적 간단하였다.

온라인목록에서는 전통적인 목록 편성체제의 틀이 깨어지게 되었다. 카드목록에서 표목으로 채택되었던 표제 저자 주제 외에도 다양한 서지사항들이 검색을 위한 접근점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색인방식에서 고안되었던 키워드 검색이나 후조합색인에 의한 검색어의 조합방식들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목록의 편성이나 검색시스템에 대한 규범은 물론이고 도서관 간의 합의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개별 도서관들의 온라인목록시스템은 독자적 사정과 개발 방침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네트워킹의 보급 확대로 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간 이동이나 큰 시간적 격차 없이 여러 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도서관들의 목록시스템 간에 공통성이 있게 된다면 목록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킹으로 도서관을 옮겨 다닐 때마다 생소한 목록시스템을 만나거나 그 사용 방법을 새로이 숙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하나의 목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목록이 카드 형태에서 기계가독형으로 바뀐 환경에서 현재의 목록규칙과 MARC포맷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²⁾들은 다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목록의 편성이나 검색체제를 언급

1) 현규섭은 기계가독형목록(MARC)이 도서관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1) 자동화시대에도 목록이 도서관의 핵심적 존재가 되게 함. 2) 서지중핵시스템의 확립. 3) 공동이용 모델의 정립. 4) 목록 검색에 새로운 기법 도입 등을 들었다. 玄圭燮, 自動化目錄法序說: KORMARC 포맷을 중심으로(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pp.23-28.
2) 정필모,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圖書館學論集, 第25輯(1996 겨울), pp.1-18.; 정필모, 이명규, 정옥경, 새로운 한국편목규칙에 관한 연구(서울: 구미무역, 2000); Rahmatollah Fattahi, "AACR2 and Catalogue Production Technology: Relevance of Cataloguing Principles to the Online Environment," in *The Principles and Future of AAC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98), pp.17-43; Barbara B. Tillet, "Future Cataloging Rules and Catalog Records," in *Origins, Content and Future on AACR2 revised*(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pp.110-118... 등.

한 연구³⁾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들이 독자적으로 온라인목록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함으로써 야기된 목록의 편성 및 검색 체계의 다양성을 조사 평가해보고, 그 공통성 유지를 위해 목록시스템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23개 4년제 대학도서관⁴⁾의 목록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된 것은 대부분의 도서관 목록시스템은 이를 개발한 회사별로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개발된 목록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온라인목록시스템들의 다양성을 관찰하는데 크게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II. 목록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목록은 이용자와 사서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용의 편의성은 ‘효과적 검색’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목록의 편성체계는 검색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검색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야 한다.

목록의 편성체계는 목록의 물리적 특성이나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목록의 관리나 검색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 목록에서는 사서가 목록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사무용목록과 이용자들의 검색을 위해 제공되는 열람용목록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필요한 종류의 목록을 갖추었다. 카드목록에서 목록의 종류를 먼저 사용자에 따라 구분한 것은 서가목록과 같이 용도나 배열순서가 열람용목록과 다른 것이 있거나, 또는 열람용목록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성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가장 먼저 편찬된 『朝鮮東書編目規則』에서는 목록을 사무용과 열람용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을 다시 주목록과 부목록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사무용 주목록은 서명의 가나다순 목록으로 하였으며, 부목록으로는 서가목록(분류목록)과 저자목록(가나다순)을 두었다. 열람용목록은 분류목록을 주목록으로 하였으며, 부목록으로 서명목록과 저자목록을 두었다.⁵⁾ 이어서 발행된 우리나라의 표준목록규칙이나 영미목록규칙이 저자명기본표목방식이었던데 비하여 『朝鮮東書編目規則』은 사무용 주목록의 표목을 서명으로 한 서명기본표목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和漢書目錄法』을 답습한데 연유하였다.⁶⁾

3)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광철완은 노트스 시스템(Univ. of Minnesota)과 다이너스 시스템(Univ. of Montana)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목록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접근점을 분석한 바 있다. 광철완, “온라인목록의 탐색유형: 관련된 변수와 사용된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66. 6.), pp.87-106.

4) 2006년 한국도서관연합의 대학도서관현황에 등재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4년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연합, 2006(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6), pp.422-441.

5)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 KCR(서울 : 國立圖書館, 1954), p.1.

『朝鮮東書編目規則』 이후 당시 서양의 목록규칙 예를 따라 저자명기본표목방식의 목록 편성 체계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고재창이 편찬한 『韓銀圖書編目法』이었다. 『韓銀圖書編目法』에서도 목록을 먼저 사무용과 열람용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다시 주목록(기본목록)과 부목록으로 나누었다. 사무용 기본목록은 저자목록으로 하였으며 서가목록과 서명목록을 부목록으로 두었다. 열람용목록은 표목에 따라 저자, 서명, 건명, 분류목록으로 나누고 저자, 서명, 건명목록을 혼합 배열한 사전체 목록을 주목록으로 하고 분류목록을 부목록으로 하였다.⁷⁾ 『韓銀圖書編目法』에서 사무용 기본목록을 저자목록으로 하여 저자명기본표목방식을 채택한 것은 『朝鮮東書編目規則』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었다.

그 후 편찬된 『韓國目錄規則』은 『韓銀圖書編目法』과 마찬가지로 저자명기본표목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목록규칙 내에서 목록의 편성체계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장일세의 『韓國目錄規則解説』에 의하면 목록을 사무용과 열람용으로 구분하고 사무용목록으로는 사무용기본목록과 서가목록을 두고, 열람용 목록으로는 저자명목록 서명목록 주제명목록 분류목록을 든다고 하였으며, 도서관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목록의 종류를 가감하여 편성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⁸⁾

이와 같은 『韓國目錄規則』의 편성체계는 이후 카드목록이 사용되는 동안 우리 도서관계에서 교과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목록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MARC포맷으로 작성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될 수 있게 되면서 목록의 편성체계는 바뀌어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무용목록과 열람용목록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는 컴퓨터상에서 이용자들이 목록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를 삭제 혹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목록레코드의 훼손 우려가 없어졌으며, 또한 카드목록 체제에서 서가목록과 같이 배열체계를 달리하는 목록도 필요할 때는 언제나 출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목록과 부출목록의 구분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모든 표목은 각각 동등한 접근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표목을 채택하거나 형식을 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편, 자동화목록에서는 기존의 표목에 해당하는 접근점들이 색인으로 추출되어 색인파일의 형식으로 저장, 검색됨으로써 접근점의 종류나 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韓國目錄規則』 4판에서는 목록의 종류를 표제목록, 저자목록, 주제명목록, 분류목록, 발행처목록, 표준번호목록, 기타목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⁹⁾ 사무용과 열람용 및 기본목록과 부출목록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韓國目錄規則』 4판의 이와 같은 구분만으로는 자동화목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 高在昶 編, 韓銀圖書編目法(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1954), p.3.

7) 위의 책, p.154.

8)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8), pp.43-47. 참고.

9) 韓國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pp.3-4.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별 도서관들의 목록 검색 시스템들은 접근점의 종류나 검색의 기법에 이르기까지 공통성이 결여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Ⅲ. 목록 검색시스템의 현황

조사 대상 도서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목록시스템¹⁰⁾을 분석하였다. 이들 도서관의 운영시스템(SW) 중 5개관은 TV사, 5개관은 SS사, 3개관은 SO사, 3개관은 XM사, 1개관은 OD사, 1개관은 SA사에서 구축하였으며 기타 5개관은 자체 제작 등의 방법으로 구축하였다.¹¹⁾

운영시스템 제작사에 따라 목록시스템들 간에 유사성이 있었다. 따라서 각종 분석표에서 도서관의 배열은 같은 제작사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비교가 수월하도록 하였다. 분석 내용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합검색과 자료 유형별 검색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서 접근점과 검색 관련 조건들을 도서관별로 비교하였다.

1. 검색을 위한 자료 유형 구분

자료 유형별 검색시스템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초기화면 및 자료검색 메뉴에서, 그리고 통합검색에서 제한사항으로 자료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0) 가야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aya.ac.kr/>> [인용 2007. 8. 17]; 경남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yungnam.ac.kr/>> [인용 2007. 8. 1]; 경상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gsnu.ac.kr/>> [인용 2007. 8. 22]; 경성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s.ac.kr/>> [인용 2007. 8. 28]; 고신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coramdeo.kosin.ac.kr/asp/KOSINLIB/>> [인용 2007. 8. 29]; 동명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tu.ac.kr/>> [인용2007. 8. 29]; 동서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center.dongseo.ac.kr/>> [인용 2007. 8. 29]; 동아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dalis.donga.ac.kr/>> [인용 2007. 8. 31]; 동의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deu.ac.kr/>> [인용 2007. 8. 31]; 부경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web.pknu.ac.kr/>> [인용 2007. 8. 31]; 부산가톨릭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cup.ac.kr/>> [인용 2007. 9. 3]; 부산교육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bnue.ac.kr/>> [인용 2007. 9. 3]; 부산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인용 2007. 9. 6]; 부산외국어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pufs.ac.kr/>> [인용 2007. 9. 6]; 부산장신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203.251.112.103/Slima/>> [인용 2007. 9. 6]; 신라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illa.ac.kr/>> [인용 2007. 9. 6]; 영산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ysu.ac.kr/>> [인용 2007. 9. 6]; 울산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ulsan.ac.kr/>> [인용 2007. 9. 6]; 인제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inje.ac.kr/>> [인용 2007. 9. 6]; 진주교육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cue.ac.kr/CJUE/>> [인용 2007. 9. 7]; 진주산업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cjlhb.chinju.ac.kr/>> [인용2007. 9. 12]; 창원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changwon.ac.kr/>> [인용 2007. 9. 12];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hhu.ac.kr/>> [인용 2007. 9. 6].

11) 韓國圖書館協會, 앞의 책, pp.614-629에서 발췌.

가. 초기화면 및 자료검색 메뉴에서 자료 유형 구분

도서관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및 자료검색 메뉴에서는 <표 1>과 같이 자료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표 1> 초기화면 및 자료검색 메뉴에서 자료 유형 구분

도서관 자료유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단행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연속간행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비도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학위논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기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신착자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전자자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기타			0		0	0													0			0		5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C도서관: 고서, 지정도서, 교수저작, 학술행사. E도서관: 고서. F도서관: 고서, 색인서. S도서관: 전공도서, 고서, 참고도서, 특수자료. V도서관: 지정도서, 참고자료

초기화면이나 자료검색 메뉴에서 자료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도서관은 1개관이었으며 그 외 22개관 모두 자료 유형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22개관에서는 전체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통합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유형으로 단행본은 14개관, 연속간행물은 16개관, 비도서자료(미디어자료)는 21개관, 학위논문과 기사자료는 각각 17개관, 신착자료는 20개관, 전자자료는 22개관에서에서 구분 단위로 하였다. 단행본을 따로 구분한 도서관이 비교적 적은 것은 목록의 검색이 단행본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 검색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도서관에 따라 고서, 지정도서, 참고도서, 교수저작, 색인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한 곳도 있었다.

나. 통합 검색의 제한사항에서 자료 유형 구분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합검색 메뉴에서 검색의 결과를 제한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료 유형을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자료 유형별 검색 외에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합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검색 내에서 검색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다시 자료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초기화면과 자료검색 메뉴에서의 자료 유형 구분과 중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의 유형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표 2〉 통합검색의 제한사항에서 자료 유형 구분

도서관 자료유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없음	0	0	0	0	구분 없음	0	0	21		
단행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연속간행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비도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학위논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기사		0	0	0	0						0		0	0	0		0									10
전자자료		0		0	0		0	0	0	0	0	0	0		0										0	12
기타			0	0	0	0			0		0	0			0											9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C도서관: 고문헌. D도서관: 참고자료, 과제도서, 고서, 일반논문집. E도서관: 고서. F도서관: 고서. I도서관: 판결자료. K도서관: 고서, 참고자료. O도서관: 연구보고서. Q도서관: 원문이미지

조사대상 23개관 중 2개관을 제외한 21개관에서 통합검색에서 제한사항으로 자료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는 21개관, 학위논문은 19개관, 기사는 10개관, 전자자료는 12개관에서 자료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에 고문헌 참고자료 과제도서 일반논문집 판결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구분한 도서관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주 메뉴의 자료 유형 구분과 통합 검색에서 제한사항으로서의 자료 유형 구분을 종합하여 보면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학위논문, 전자자료, 기사자료, 신착자료 등이 자료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자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자료는 그 양이 많지 않아 목록보다는 주로 직접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신착자료목록은 다른 유형의 검색에서도 검색된다. 또한 기사자료는 목록이라기보다는 색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자료와 신착자료, 기사자료 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장부터 통합검색 외에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학위논문 등의 자료 유형별 검색시스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통합검색의 접근점과 검색조건

가. 접근점

도서관별 통합검색의 접근점 종류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23개관 모두에서 자료명, 저자,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주제는 18개관, 표준번호(ISBN, ISSN)는 17개관, 청구기호는 14개관, 등록번호는 11개관, 총서명은 11개관, 초록은 8개관, 제어번호는 5개관, 분류번호는 5개관, 발행연도는 3개관, 목차는 3개관에서 각각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총서명을 채택하지 않은 도서관이 많은 것은 이를 서명에 포함시

켜 관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통합검색의 접근점 종류

도서관 접근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전체		0	0								0		0	0	0		0				0			8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발행연도					0								0								0			3
총서명					0	0	0	0	0	0			0				0	0		0			0	11
ISB(S)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분류번호	0				0						0	0	0											5
주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목차													0			0	0							3
초록					0	0	0	0	0	0						0							0	8
제어번호				0	0						0	0	0											5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0						0	11
기타					0							0	0					0						4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E도서관: 저널명, 부서명. L도서관: 보고서번호, LCCN. M도서관: 학위논문전공학과. R도서관: 주기사항.

전통적으로 저자, 서명, 주제(주제명 및 분류기호)를 중요한 접근점으로 인식하였던데 비하여 조사대상 모든 도서관에서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등록번호, 표준번호, MARC 레코드의 제어번호와 같이 목록 검색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도 접근점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해제, 목차 등은 현재보다는 장래의 이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색조건

(1) 접근점

도서관별 통합검색의 검색조건(검색어의 조합방식, 일치방식, 검색유형 등)은 〈표 4〉와 같다. 검색어의 조합방식으로 최초검색에서는 23개관 모두 AND를 사용하고 있으며 OR는 19개관, NOT은 15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최초검색의 결과가 너무 많을 경우 검색의 정확율을 높이고 검색된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결과내 검색 메뉴를 두고 있는 도서관이 16개관이었으며 이를 위해 이들 16개관 모두에서 AND를 사용하였고, NOT은 4개관 만 사용하였다.

〈표 4〉 통합검색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도서관																			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조합 방식	최초 검색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O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NO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결과내 검색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NOT						0	0	0		0													4
		없음	0							0									0	0	0	0		0	7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12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0				0		0				5	
	간략검색				0	0								0				0		0				5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어와 목록의 접근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23개관 모두에서 키워드 일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방일치방식은 21개관, 완전일치방식은 12개관에서 채택하였다. 키워드 및 전방일치방식의 정보검색은 검색의 재현율을 높일 수 있어 검색되는 문헌의 양이 많아지나 대신 부적합한 정보도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결과내검색은 필요한 것이다.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하는 도서관의 수는 극히 적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초기화면에서 간략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목록 검색시스템에서는 상세검색만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자료 유형별 접근점과 검색조건

가. 단행본

(1) 접근점

도서관별 단행본 검색의 접근점 종류는 〈표 5〉와 같다.

단행본 검색을 위해 사용된 접근점의 양상도 통합검색의 경우와 유사하다. 접근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1개관을 제외한 22개관 전체에서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ISBN은 17개관, 주제는 16개관, 청구기호는 12개관, 총서명은 11개관, 등록번호는 10개관, 초록은 7개관, 분류번호는 4개관, 목차는 3개관, 제어번호는 2개관, 발행연도는 1개관이 각각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표 5〉 단행본 검색의 접근점 종류

접근점	도서관																				U	V	W	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전체		0	0						0		0		0	0	0	0		0			구분 없음	0		9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발행연도					0																			1
총서명						0	0	0	0	0		0	0			0	0		0				0	11
ISB(S)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0	0						0	12
분류번호	0										0	0	0											4
주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목차												0				0		0						3
초록						0	0	0	0	0					0								0	7
제어번호											0	0												2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0	10
기타												0						0					2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L도서관: 보고서번호, LCCN, R도서관: 주기사항.

단행본 검색을 위한 접근점에서도 발행처, 표준번호, 청구기호, 등록번호, 제어번호 등 사무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검색조건

도서관별 단행본 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6〉과 같다.

〈표 6〉 단행본 검색의 검색조건

검색조건	도서관																				U	V	W	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조합 방식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단행본 구분 없음	0	0	22
	O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NOT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12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0				3
	간략검색				0	0														0				3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단행본 검색에서 사용된 검색어의 조합방식이나 일치방식, 검색유형도 통합검색의 경우와 유사하다.

검색어의 조합방식으로는 검색에서 따로 단행본을 구분하지 않은 1개관을 제외한 22개관 모두에서 AND를 사용하고 있으며, OR은 18개관, NOT은 15개관에서 사용하였다.

일치방식으로는 전방일치는 20개관, 완전일치는 12개관, 키워드 일치는 22개관이 각각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키워드나 전방일치 검색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검색의 재현율은 높아질 것이나 불필요한 문헌들이 많이 검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단행본 검색에서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은 3개관이었으며 나머지 도서관들에서는 간략검색 메뉴를 두지 않고 있다.

나. 연속간행물

(1) 접근점

도서관별 연속간행물 검색의 접근점은 <표 7>과 같다.

<표 7> 연속간행물 검색의 접근점 종류

도서관 접근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전체		0	0									0		0	0	0		연속간행물 구분 없음			연속간행물 구분 없음	0		7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총서명						0	0	0	0								0					0			0	7	
ISB(S)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0	0								0	12	
분류번호	0										0	0	0													4	
주제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목차																0										1	
초록						0	0	0	0							0									0	6	
제어번호												0														1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0	10	
기타												0												1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L도서관: 보고서번호, LCCN

자료 유형으로 연속간행물을 구분하지 않은 2개관을 제외한 21개관 중 자료명은 21개관, 저자는 18개관, 발행처는 20개관에서 각각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주제와 표준번호는 각각 16개관, 청구기호는 12개관, 등록번호는 10개관, 총서명은 7개관, 초록은 6개관, 분류번호는 4개관, 목

차, 제어번호는 각 1개관, 그리고 보고서번호나 LCCN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도서관도 있었다.

연속간행물에서도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사무용으로만 사용될 것들을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다. 또한 연속간행물의 특성상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들 즉 저자명이나 총서명 등을 접근점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비교적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형의 자료 즉 단행본과 같은 것들의 접근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연속간행물에도 적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검색조건

도서관별 연속간행물 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8>과 같다.

<표 8> 연속간행물 검색의 검색조건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조합 방식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메뉴 만 있 음	0	0	연속 간행 물구 분없 음	0	0	21
	O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NO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메뉴 만 있 음	0	0	연속 간행 물구 분없 음	0		20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12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0	연속 간행 물구 분없 음			3	
	간략검색				0	0													0				3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운영SW	TV				SS				SO				XM		OD	SA	기타								

검색어의 조합방식으로는 따로 연속간행물을 구별하지 않은 2개관을 제외하고 21개관 모두에서 AND를 사용하였으며, OR는 17개관, NOT은 15개관에서 사용하였다.

일치방식으로는 전방일치는 20개관, 완전일치는 12개관, 키워드 일치는 21개관이 각각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연속간행물의 자모순리스트나 주제별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이 많았다. 이는 연속간행물의 구독 종수가 많지 않아서 이와 같은 리스트가 요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3개관이었으며 그 외의 도서관들에서는 간략검색 메뉴를 두지 않고 있다.

다. 학위논문

(1) 접근점

도서관별 학위논문 검색의 접근점은 <표 9>와 같다.

〈표 9〉 학위논문 검색의 접근점 종류

도서관 접근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전체		0	0									0		0	0	0						0		7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발행연도											0		0								0			3
총서명						0	0	0	0	0							0						0	7
ISB(S)N	0					0	0	0	0	0		0					0						0	9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10
분류번호	0											0												2
주제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목차		0																						1
초록		0				0	0	0	0	0													0	7
제어번호												0												1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0	10
수여기관				0	0							0	0			0								5
기타											0	0				0								3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K도서관: 언어, L도서관: LCCN, P도서관: 지도교수

학위논문을 구분하지 않은 2개관을 제외한 21개관에서 자료명과 저자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발행처는 18개관, 주제는 15개관, 청구기호와 등록번호는 각 10개관, 표준번호는 9개관, 총서명과 초록은 각 7개관, 수여기관은 5개관, 발행연도는 3개관, 분류번호는 2개관, 목차와 제어번호는 각 1개관에서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언어나 지도교수, LCCN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도서관도 있었다.

학위논문에는 본래 발행처나 총서명 표준번호 등이 없다. 학위논문 검색에 이러한 것들을 접근점으로 채택한 것은 다른 유형의 자료들에 대한 검색요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검색조건

도서관별 학위논문 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10〉과 같다.

검색어의 조합방식으로는 학위논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2개관을 제외하고 21개관 모두에서 AND를 사용하였으며, OR는 18개관, NOT은 15개관에서 사용하였다.

일치방식으로는 전방일치는 20개관, 완전일치는 12개관, 키워드일치는 21개관이 각각 채택하였으며, 그 외에 연속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자모순리스트나 주제별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이 많았다.

〈표 10〉 학위논문 검색의 검색조건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조합 방식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위 논문 구분 없음	0	학위 논문 구분 없음	0	0	0	21
	O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NO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위 논문 구분 없음	0	0	0	0	20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12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2		
	간략검색				0	0																	2		
	구분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운영 SW	TV			SS			SO			XM			OD	SA	기타										

학위논문의 검색에서도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2개관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도서관들에서는 간략검색을 두지 않고 있었다.

라. 비도서자료

(1) 접근점

도서관별 비도서자료 검색의 접근점 종류는 〈표 11〉과 같다.

〈표 11〉 비도서자료 검색의 접근점 종류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접근점	전체		0	0									0		0	0	0	0	0				0		8	
	자료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저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발행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발행연도																						0			1
	총서명						0	0	0	0	0				0					0	0			0	10	
	ISB(S)N	0		0			0	0	0	0	0		0	0					0	0				0	13	
	청구기호						0	0	0	0	0		0	0					0	0				0	10	
	분류번호	0												0	0										3	
	주제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목차													0						0					3	
	초록						0	0	0	0	0								0					0	7	
	제어번호														0										1	
	등록번호						0	0	0	0	0	0	0	0					0					0	10	
	기타				0	0								0						0					4	
운영SW	TV			SS			SO			XM			OD	SA	기타											

※ 기타 - D도서관: 컨텐츠유형, E도서관: 컨텐츠유형, 소장위치, 별칭기호, L도서관: 보고서번호, R도서관: 주기사항.

비도서자료는 미디어자료, 멀티미디어자료로 표현되거나 비디오, 오디오자료 등 자료의 종류별로 나눈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를 비도서자료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23개관 중에서 접근점의 종류를 구분 하지 않고 전체 접근점을 대상으로 검색하도록 한 1개관을 제외하고 22개관에서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채택하였다. 그 외에 주제는 16개관, 표준번호는 13개관, 청구기호, 등록번호, 총서명은 각 10개관, 초록은 7개관, 분류번호, 목차는 각 3개관, 발행연도, 제어번호는 각 1개관이 접근점으로 채택하였으며, 콘텐츠 유형, 소장위치, 별치기호, 보고서번호, 주기사항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

(2) 검색조건

도서관별 비도서자료 검색의 검색조건은 <표 12>와 같다.

<표 12> 비도서자료 검색의 검색조건

도서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계	
조합 방식	A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OR		0	0	0	0	0	0	0		0	0	0	0	0	미사용	0	0	0		미사용		0	0		17
	NO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일치 방식	전방일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완전일치		0	0	0	0	0	0	0		0	0		0	0											11
	키워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검색 유형	상세검색				0	0													0		0					4
	간략검색				0	0													0		0					4
	메뉴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운영SW	TV				SS				SO				XM			OD	SA	기타								

검색어의 조합방식으로는 조합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2개관을 제외하고 21개관 모두에서 AND를 사용하였으며, OR은 17개관, NOT은 14개관에서 사용하였다.

일치방식은 전방일치는 20개관, 완전일치는 11개관, 키워드 일치는 22개관이 각각 채택하였다. 그 외에 자모순리스트나 주제별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이 많았다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도서관은 4개관이었으며 나머지 13개 도서관에서는 간략검색을 두지 않고 있었다.

IV. 분석 결과의 평가와 대안

분석 결과의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표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유형 구분의 다양성과 도서관 간의 공통성 결여

검색 대상자료를 제한하기 위해 도서관별로 자료 유형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학위논문, 기사자료, 전자자료, 신착자료, 고문헌, 전공도서, 참고자료, 과제도서(지정도서), 논문집, 판결자료, 연구보고서, 교수저작, 학술행사, 특정 집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자료 유형 구분이 이렇듯 다양하고 도서관 간에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유형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

또한 전자매체의 출현으로 자료 유형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전자저널이나 전자도서는 연속간행물 및 단행본과 전자자료의 개념에 중첩될 수 있다. CD나 DVD와 같은 음향 및 영상자료는 비도서자료(매체자료)의 일종이지만 컴퓨터를 통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전자자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들, 예를 들면 비도서자료는 미디어자료 멀티미디어 시청각자료 등으로, 연속간행물은 정기간행물과 혼용되어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다.

검색을 위한 자료 유형 구분은 각종 자료별로 검색에 필요한 접근점이나 검색조건 등의 유사성과 자료별 소장 양 등을 고려하여 군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²⁾ 결과에 따르면 많이 사용하는 도서관 자료의 순위는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오디오, 비디오자료), 전자자료, 학위논문, 논문집, 기사색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록의 검색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료 유형의 순위도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오디오, 비디오자료), 학위논문, 전자자료, 일반논문집, 기사색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목록을 검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¹³⁾

이러한 결과에서 자료나 목록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 유형들은 앞서의 목록시스템 분석에서 도서관간의 공통성이 강한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목록 검색을 위한 자료 유형 구분은 이용

12) 현재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용자들의 목록 이용 행태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대상 도서관 중 1개 도서관의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몇몇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2007. 10. 23)를 하였다.

13) 자료 유형을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논문집, 오디오·비디오자료, 전자자료, 기사색인, 기타로 구분하여 자주 이용하는 자료와, 목록검색에서 자주 이용하는 자료 유형을 각각 5가지 내에서 선택하도록 한 문항의 집계 결과이다.

빈도가 높은 단행본, 그리고 이용자나 검색의 방식이 단행본에 비해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속간행물과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용어도 이와 같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비도서자료에는 한국목록규칙 4판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료 유형들 중 지도자료, 악보, 녹음자료,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실물자료, 마이크로자료, 점자자료를 포함시키고 비도서 자료들의 양이 많은 경우 하위 구분에서 다시 종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컴퓨터를 통하여 접근이나 이용이 가능한 매체, 예를 들면 전자책(e-book), 전자저널(e-저널) 등과 CD나 DVD는 전자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접근점 종류의 다양성과 공통성 결여

통합검색 및 유형별 검색 모두에서 도서관마다 채택하고 있는 접근점의 종류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에 따라 접근점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혼잡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선행의 연구¹⁴⁾나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접근점은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도서관들의 접근점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온라인목록이 이용자 외에 사서들을 위한 사무용으로도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록이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검색과 유형별 검색에서 이와 같은 접근점들을 전부 나열하여 번잡한 느낌을 갖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검색에서는 사무용으로 필요한 것들까지 포함하여 자료명, 저자, 주제, 분류기호, 발행처, 발행연도, 표준기호(ISBN, ISSN), 청구기호, 등록번호 등을 모두 접근점으로 사용하되 자료 유형별 검색에는 이용자들이 문헌검색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만 접근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곽철완의 연구에 따르면 목록 탐색을 위해 이용자들이 선택한 접근점의 빈도가 주제 34.64%, 서명 30.00%, 저자 16.43% 키워드 11.43%, 기타 7.89%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⁵⁾ 다른 한편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근점의 이용 빈도 순위가 자료명 95명, 저자 81명, 주제 56명, 총서명 38명, 발행처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⁶⁾ 두 가지 결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카드목록으로부터 온라인목록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여전히 저자와 서명 주제로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형별 검색의 접근점은 일차적으로 서명, 저자, 주제로 한정하고, 그 외에 자료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접근점들은 선별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형별로 검색 메뉴를 구분하는 것은 검색 대상을 제한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외에

14) 곽철완, 앞의 논문, p.97.

15) 위의 논문, 동면.

16) 목록을 검색할 때 현재 많은 도서관에서 접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연도, 총서명, 표준번호(ISBN, ISSN), 주제어, 분류기호, 청구기호, 등록번호, 기타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을 5가지 내로 선택하도록 한 문항의 집계 결과임.

자료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접근점과 불필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검색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료 유형은 구분하였으나 그 각각에 적절한 접근점을 취사선택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드물었다.

유형별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별로 적절한 접근점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위논문 검색에는 학위수여기관이나 학과 혹은 전공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연속간행물은 대부분 저자가 없으므로 저자를 제외하고 발행처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비도서자료의 경우는 제작처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작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이라도 접근점의 종류가 너무 번다하게 많아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목록의 검색에서 주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실정상 주제명을 부여할 수 있는 준거자료(주제명표목표 등)가 마땅하지 않아 대부분 도서관에서 분류표상에 주어진 표제어를 주제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주제명이 정밀하지 못하고 주제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참조가 미흡하다. 따라서 그 보완책의 하나로 분류기호를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검색조건의 도서관간 공통성 결여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대부분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합방식으로는 AND, OR, NOT 등이 있으나 일부 도서관들은 OR나 NOT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검색어의 조합방식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며, 실제로 이용자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조합방식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¹⁷⁾

검색된 자료의 양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너무 많아 그 양을 조절하거나, 정확율을 높이기 위해 검색어의 조합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목록의 검색에서 조합방식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목록업무가 자동화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검색어의 조합방식은 현재의 활용도가 낮거나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를 경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을 통해서 이를 숙지시킴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조합방식의 종류도 가급적 정교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AND, OR, NOT 정도는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내검색 메뉴를 두지 않은 도서관들이 있었으나 이것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

17) 검색어의 조합방식 AND, OR, NOT과 사용하지 않거나 모른다 중 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것에 모두 O 표하라는 문항에서 AND에는 51명, OR에는 25명, NOT에는 3 명이 O표하였고, 39명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된다. 왜냐하면 키워드일치나 전방일치에 의한 검색에서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량의 자료가 검색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색된 자료에서 보다 적합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결과내검색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에도 검색식으로는 AND와 NOT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검색어의 일치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워드일치방식은 53명, 전방일치방식은 43명, 완전일치방식은 17명이 응답하였고, 사용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도 18명이 있었다.¹⁸⁾

키워드 일치 방식이나 전방일치 방식만으로는 검색의 정확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최초 검색부터 정확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일치방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검색어의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색어의 일치방식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서관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검색어의 일치방식은 키워드일치방식, 전방일치방식, 완전일치방식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도서관의 경우 자료검색에서 상세검색과 간략검색을 구분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간략검색은 굳이 따로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세검색에서 검색어의 결합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맨 위의 검색항목만 사용하면 간략검색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빠르고 간편한 자료 검색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검색 메뉴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온라인목록 검색시스템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도서관마다 채택하고 있는 자료 유형 구분이 일치하지 않고, 검색에 사용된 접근점의 종류나, 검색어의 조합방식, 일치방식, 검색유형 등이 도서관마다 각기 달랐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색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도서관측의 사려 깊은 연구 없이 설정된 정황들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분석 결과를 유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 대상 요소들이 동일한 제작사에 의해 만들어진 운영 SW를 사용하는 도서관들 간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었으며, 소프트웨어를 달리하는 도서관 간에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목록시스템이나 그 검색 체계는 SW 제작자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되어 구축되었고 이를 직접 사용할 도서관이나 이용자의 요구는 부차적이었거나 오히려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록 이용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18) 검색어의 일치방식에서 전방일치, 완전일치, 키워드, 사용하지 않거나 '모른다' 중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것에 모두 'O'표 하라는 문항에 대한 집계 결과임.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SW가 많아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카드목록 체제에서 자동화목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목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준거가 될 만한 기본적인 틀을 도서관계가 주축이 되어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서관계가 주축이 되어 이러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추후 이용자들의 목록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계속되어 목록시스템에 이용자의 요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